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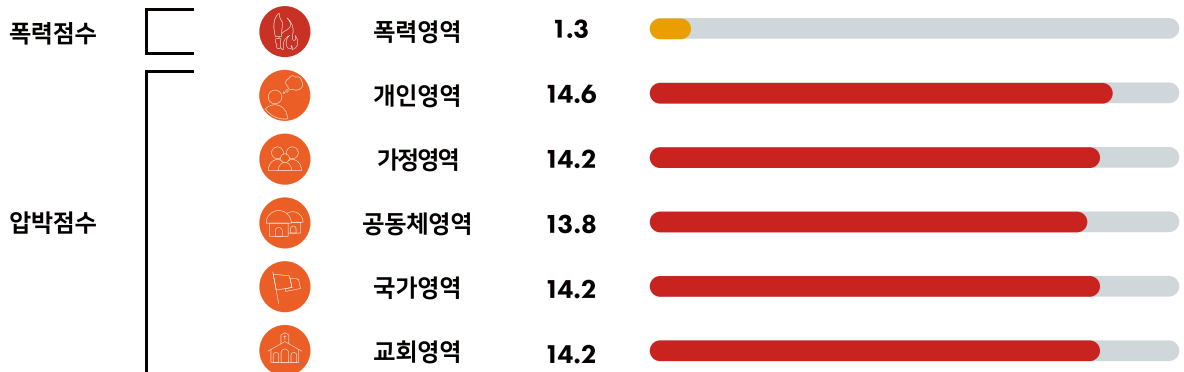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국

23위

모리타니 (MAURITAN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x 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극도의 반대에 부딪힌다. 이런 탄압적 환경은 이들에게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리타니아 토착민이 아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포함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무슬림을 개종 시키려는 포교로 간주되어 투옥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리타니 (MAURITANIA)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울드 엘-가자우아니 대통령

인구 : 5,030,000

기독교인 수 : 11,100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1,100	0.2
이슬람교인	4,994,000	99.3
민족종교주의자	19,400	0.4
불가지론자	4,800	0.1

출처²

모리타니는 광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문화는 전통적이며 부족이 그 핵심에 있다. 지속적으로 내려온 노예 제도의 관행은 사회 분열과 악 감정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백인인 무어인과 베르베르인은 아랍 혈통이지만, 하라틴 또는 흑인 무어인이라 불리는 노예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민족 혈통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 백인인 무어인에게 있고, 그 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70%) 상당히 밀려나 있다는 의미이다.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는 수도 누악쇼트 주위 서부 지역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기는 하나, 동부 국경 지역에 더욱 활동이 강하고, 무장 단체와 다른 범죄 조직에

의한 납치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위험 요소이다.

국가의 정식 명칭은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며;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포교 활동을 막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간 개종자들에게 정부의 적대감은 높다. 이론 상으로 이슬람을 배교하는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나, 근래에 이것을 실행한 적은 없다. Middle East Concern에 의하면, “언론 법에서, 비이슬람 종교 자료에 대해 개인 소장은 가능하나, 인쇄, 배포, 수입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다.”

국내 대부분 기독교인은 주로 세네갈과 기니비사우와 같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그들은 제한적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모두 무슬림으로 여겨지는 모리타니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봉사 활동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WCD)에 따르면 모리타니 기독교인 대다수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모리타니 사람의 수는 여전히 소수로 남아 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와 정부로부터 극도로 심한 박해를 받는다.

¹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특히 농촌에서는 부족과 가족 간 유대가 엄격하지만 수도 누악쇼트에서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압박이 매우 클 수 있다. 이슬람 마그렐에 있는 알 카에다 (AQIM)와 서아프리카의 단결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 (MUJAO)은 특히 동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 점수 기록과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출신 로마 가톨릭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모리타니 남부 국가 출신 개신

교와 복음주의자들이 다음을 차지 한다. 서구 기독교인들의 수는 적다. 아프리카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민족적 편견과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된 압력으로 인해 위태로운 생활을 한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슬람교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 단체, 그들의 대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표적이 되는 위협과 폭력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유목 사회에서 공동체의 상호 의존은 생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개종자들은 자신의 개종이 발각될 경우, 공동체에서 자신의 입지를 잃어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을 숨기려 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이슬람의 탄압

이것이 모리타니에서 작동되는 박해의 근본적 동력이다. 모리타니는 자칭 이슬람 공화국이며, 이슬람 주의가 나라의 지배적인 정치 이념이다. 비이슬람 교도들은 특히 이슬람 단체에 의해 위협과 박해를 경험한다. 많은 모리타니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부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과격 무장 단체에 가담하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슬람 무장 투쟁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와하브와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다른 급진 이슬람 운동에 공적으로 공간을 제공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의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신앙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서 박해의 피해를 입는다.

씨족의 탄압 / 민족 종교적 적대감

도시화가 비교적 현재적 현상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 나라에서는 부족과 인종 간에 긴장은 얹혀 있다.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과 정부의 압력 뿐만 아니라, 부족이나 민족 전체가 느끼는 수치심으로 인해 더 큰 박해를 받게 된다. 민족성과 연계된 노예의 문제도 박해에 한 몫 하는 것은, 노예 제도의 옹호자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이슬람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노예제도 반대 운동은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에 살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 차별을 함께 겪는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부족간의 관계, 종교적, 개인적 관계는 모리타니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척주의, 고객주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부패는 정부 내에도 널리 퍼져 있다. 반부패 캠페인은 미미한 수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왔다. 국가 당국이나 국영 기업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언론인들은 협박, 구금,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BTI 2020, p.12). 군대와 대통령직과 관련된 권력자들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처벌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이슬람의 탄압

현 정부는 권력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기독교화 되는 어떤 영향력이 정부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이에 더한 박해가 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함으로써 이슬람 단체들 사이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특히 2019년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는 종종 서구화와 동일시되며, 따라서 정부는 이것을 외국의 위협으로 여기고, 그들의 가족과 사회도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모리타니의 부족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에 종속되어, 여성 개종자들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음식을 빼앗기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가택연금 당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강요 당하며, 거부하면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기혼 여성 개종자들은 생존할 수단도 없이 쉽게 이혼을 당하며, 일부다처제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신체적/정신적/성적

남성

탈레반은 남성들에게 좋은 가장임을 보이기 위해 하루에 다섯 번 씩 기도하고, 모스크에 참석하며, 금식하고, 또한 "적당한" 수염을 길러야 한다고 압박한다. 기독교 남성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조롱과 투옥, 고문, 성적 학대, 그리고 잠재적으로 죽음에 직면한다. 또한 남자와 소년들은 그들의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려는 민병대의 표적이 된다. 이런 압박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남성, 특히 개종자들은 가능한 한 낮은 인지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고, 일부는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직장에서 낮은 수준의 직책을 선택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적 공동체/연결망 접근 제한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죽음/신체적/정신적/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 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4	23	72
2023	20	72
2022	23	70
2021	20	71
2020	24	68

모리타니는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같은 점수를 얻었지만, 그러나 순위는 세 단계 하락했다. 평균 압박은 14.2점으로 극단적이지만, 폭력은 1.3 점으로 여전히 낮다. 특히 개인, 가족, 국가 및 교회 영역에서 극도로 높은 수준의 압력은 모리타니 지역 기독교인들이 가족, 지역 사회, 정부로부터 받는 압력을 직면하는 압력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출신의 국외 거주 기독교인들은 모리타니 사회와 정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은 인종 차별 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국내 토착민 기독교인과 이주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보안의 문제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

- 세례는 비밀리 수행되어야 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발각되어 배교 혐의를 받는 것이 두려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한다.
- 가족에게 발각된 개종자들은 종종 추방의 압박을 받기도 한다.
- 보고 기간 동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의 두 젊은 여성이 그들이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을 당하였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구금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들	추방당한 기독교인	강제 결혼 당한 기독교인
2024	0	10*	1	2
2023	2	10*	7	0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주민 기독교인들, 특히 사하라 이남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임이 밝혀질 경우 차별과 학대를 받고, 포교하는 것으로 고발 당할 수 있다. 세례는 비밀리에 행해져야만 하고, 이슬람 출신의 많은 개종자들은 세례 받기를 꺼린다; 그들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배교 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슬람으로부터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 이 법은 대체로 상징적이지만, 이슬람교 출신의 개종자들에게는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

가족영역

모든 모리타니 사람과 그들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여겨지고 등록된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공립 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받아야 하고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모리타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개종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

공동체영역

이슬람교 수니파를 따르지 않는 모리타니 사람에 대해

서는 극도의 공동체적 압력이 가해진다. 그들은 배척, 사회적 차별, 경제적 배제, 폭력의 형태를 받을 수 있다. 모리타니 사회는 민족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경제와 정부가 부패되고 거래가 오가는 고객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문제는 더 고조되었다.

사하라 이남 출신의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피부색과 신앙, 둘 다로 인해 차별을 겪는다.

국가영역

모리타니에는 배교와 신성 모독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이 이슬람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

교회영역

프랑스 통치의 유산으로 인해,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공공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복음주의자들이 누악쇼트 교구에서 예배를 위해 구내 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포교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민 교회들은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통합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건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리타니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방지 협약 (CAT)
4. 여성 차별 철폐 협약 (CEDAW)
5. 유엔 아동 권리 협약 (CRC)

모리타니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리타니안들은 구금 되는 동안 투옥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ICCPR 제 7, 9, 18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위해 심지어 성년에 달하기 전에 무슬림 남성들과의 강제 결혼의 위협에 직면한다 (ICCPR 제 23조, CEDAW 제 16조, ICESCR 제 10조)
- 기독교인 아동들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신앙 때문에 차별과 압박에 직면한다 (ICCPR 제 18조, CRC 제 14조)
-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공동 자원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외되고 사업은 보이콧 강한다 (ICCPR 제 26조, ICESCR 제 11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모리타니 안에서는 매우 작으나 성장하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소수 민족이 있다. 역사적으로 모리타니 정부는 이란과 좋은 외교 관계를 가졌고, 시아파를 겨냥하는 것에는 주저했다. 그러나 2018년에 시아파 종교 센터 한 곳이 폐쇄되었다. 수니파 종교 지도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가할 것을 요구하며 소수 집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오픈도어의 모리타니 사역

오픈도어는 모리타니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지원을 일으키고 있다.

